

주택대출 '이자폭탄'에 우는 서민들 사연

"수도권 집값 잡는데 왜 우리가..."

이찬수씨(43·광주시 남구 진월동)는 2년 전 끊었던 담배를 최근들어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2개월 전 문을 연 치킨가게 영업이 신통치 않은 것도 원인이다만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근 치솟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를 수 없다.

이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12월. 중학교에 진학하는 큰 딸을 위해 광주시 북구 두암동 집을 팔고 학군이 좋다는 진월동 34평짜리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국민은행에서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금리는 연 5.70%로 1년 이자 456만원. 하지만 이씨가 다니던 직장이 부도나면서 불행은 시작됐다. 이씨는 근근히 3개월 이자를 막아오다 안되겠다 싶어 지난 10월 집 근처에 작은 치킨 가게를 냈다. 그러나 하필 이때 조

류인플루엔자 파동이 덮쳤다. 그사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8%포인트 올라 연간 이자부담액이 520만원으로 64만원이 더 늘었다.

이씨는 "수도권 집값 잡기 위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늘어난 사교육비 보충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2천500만원을 빌렸는데 첫날 11만7천750원하던 이자가 6월에는 13만366원, 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이 서민들의 생계를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대다수가 1억원 미만의 실수요자로, 대출의 97%가 금리인상이 곧바로 반영되는 변동금리상품이다 보니 타격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지역민들의 가계대출액이 2004년 10월말 7조8천406억원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9조1천375억원으로 2년동안 16.5%나 급증하면서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정애 조사역은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 현재 6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8천만원 대출 年이자 64만원 늘어 팍팍 오르는 금리...가계 압박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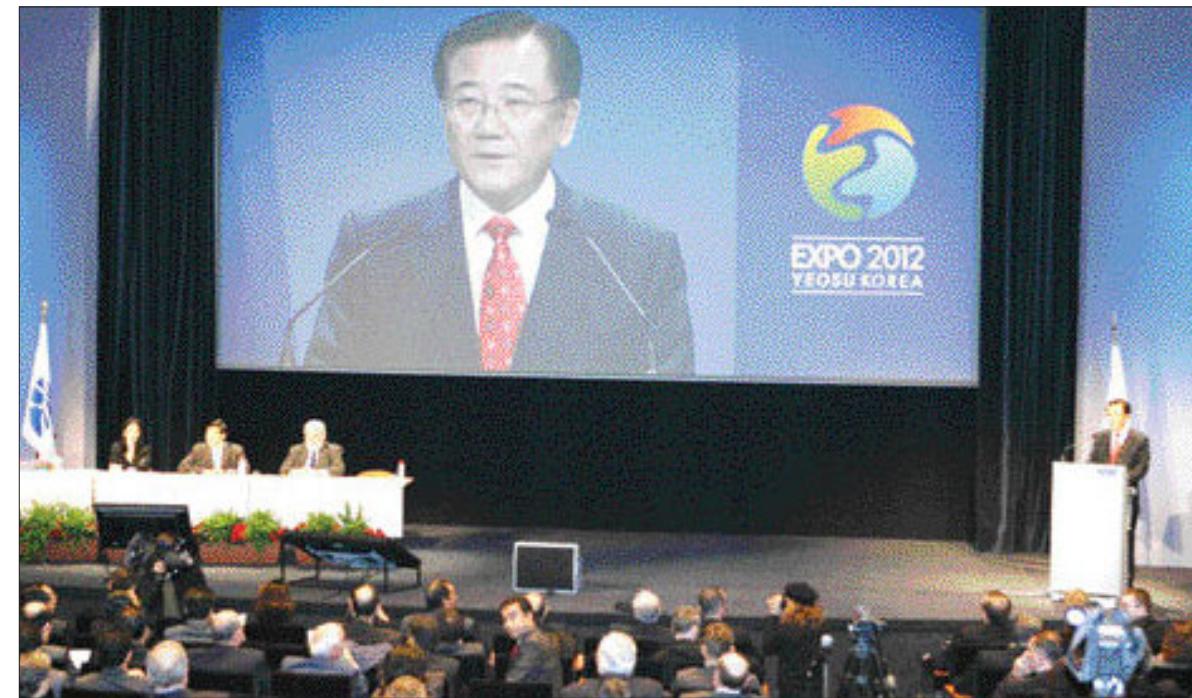
해 올린 주택담보금리가 지방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며 "장사도 안되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올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지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사는 주부 이진숙씨(여·45)도 요즘 주택담보

난달에는 14만567원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집 한채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수 있는 방법이 주택대출밖에 없는데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마저 올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 엑스포' BIE 외교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40회 BIE (세계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19일 현지시간 간 BIE 회원국 대표들에게 여수 박람회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 대표 및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김성진 해수부장관과 오현섭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내버스 오늘부터 준공영제

생활권 위주 노선 전면 개편...요금 100원 인상

21일부터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고, 버스요금도 100원 오른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공동으로 시내버스 운영을 하는 준공영제를 도입, 대중교통체계를 대체적으로 바꾸면서 생기게 된 변화다. <관련기사 7면>

◇전면적인 노선개편=기존 77개 시내버스 노선은 급행간선 4개·간선 19개·지선 62개 노선 등 모두 86개 노선으로 재편되며, 여기에 마을버스 13개 노선·지하철 1개 노선을 묶는 100개의 통합대중교통망이 완성돼, 노선 선택권이 크게 늘어난다.

시내버스 번호도 '상무 02'·'첨단 94'

등 출발지에 숫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고쳐,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기 쉽게 했다. 급행간선 버스는 적색, 간선은 황색, 지선은 녹색으로 바꿨다.

배차간격은 평균 10분대로 줄어들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승기준은 승차시간 기준 1시간 이내(지하철은 먼저 탑승할 경우는 하차시간 기준으로 30분 이내)로 횟수에 상관없이 각 수단간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시계외 구간요금과 마을버스의 오지 구간요금은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용 교통카드도 도입된다.

광주버스와 전남버스를 이용할 때도 한 장의 교통카드만 사용하게 된다. 광주버스와 전남버스간 무료환승은 안 된다.

노선 개편에 대한 의문점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bus.gicity.net>)나, 노선안내 상담반(613-5700)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1일 2천여명의 공무원들을 주요 승강장에 배치해 노선 안내에 나선다.

◇버스요금 인상=일반인의 경우 현금 900원·교통카드(승차권) 800원에서 각각 1천원과 950원으로 오른다. 중·고생은 현금 650원·교통카드 570원에서 각각 700원과 670원으로 인상된다. /김주정기자 jnews@

광주시내버스 전면 개편으로 노선이 확장된다. 노선 개편에 대한 의문점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bus.gicity.net>)나, 노선안내 상담반(613-5700)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1일 2천여명의 공무원들을 주요 승강장에 배치해 노선 안내에 나선다.

◇버스요금 인상=일반인의 경우 현금 900원·교통카드(승차권) 800원에서 각각 1천원과 950원으로 오른다. 중·고생은 현금 650원·교통카드 570원에서 각각 700원과 670원으로 인상된다. /김주정기자 jnews@

"6자회담 모종의 합의 도달"

中 리자오싱 밝혀...일정 하루 연장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20일 "참가국들의 노력 덕택에 북한핵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리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6자회담 당사국 대표들이 합석한 가운데 열린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회담장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21일 오전 폐막할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 2단계회의의 일정이 하루 정도 연장돼 22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밝혔다.

천 본부장은 이날 사흘째 열린 6개

국 수석대표간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초 내일(21일) 폐회를 목표로 했으나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 내일과 모래 이를 동안 회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8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초기단계 이행방안'에 대한 각국의 원론적 입장을 개진한 이후 어제(19일)와 오늘 각종 양자협의와 전체 협의 등을 통해 일단 각국 입장차의 핵심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가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미 양국은 20일 베이징 다오위타이(鯉魚臺)와 북한대사관에서 각각 양자회동과 'BDA 실무회의'를 속개해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절충작업을 벌였다.

천 본부장은 이날 사흘째 열린 6개

국 수석대표간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초 내일(21일) 폐회를 목표로 했으나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 내일과 모래 이를 동안 회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8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초기단계 이행방안'에 대한 각국의 원론적 입장을 개진한 이후 어제(19일)와 오늘 각종 양자협의와 전체 협의 등을 통해 일단 각국 입장차의 핵심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가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미 양국은 20일 베이징 다오위타이(鯉魚臺)와 북한대사관에서 각각 양자회동과 'BDA 실무회의'를 속개해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절충작업을 벌였다.

천 본부장은 이날 사흘째 열린 6개

현재소장 이강국씨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현법재판소장에 이강국(61·사시 8회·사진) 전 대법관을 내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손지열(59·사시 9회) 전 대법관, 이공현(57·사시 13회) 현재 재판관 등을



3배수로 압축해 내부검증을 한 결과, 21일 인사추천회의에 앞서 이 전 대법관을 최종 후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21회 광주·전남여성경제인 포럼

김두연 소장 '여성CEO를 위한 코칭스킬'

26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6일 오전 11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21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두연 비즈

니스코칭연구소장이 '여성CEO를 위한 코칭스킬'이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포럼은 남녀 시민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일시 : 12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주제 : 여성 CEO를 위한 코칭스킬

■강사 : 김두연 비즈니스코칭연구소장

■회비 : 1만원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020

광주시내버스 오늘부터 준공영제

생활권 위주 노선 전면 개편...요금 100원 인상

21일부터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전

면 개편되고, 버스요금도 100원 오른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운영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공동으로 시내버스 운

영을 하는 준공영제를 도입, 대중교

통체계를 대체적으로 바꾸면서 생기

게 된 변화다. <관련기사 7면>

◇전면적인 노선개편=기존 77개

시내버스 노선은 급행간선 4개·간선

19개·지선 62개 노선 등 모두 86개

노선으로 재편되며, 여기에 마을버스

13개 노선·지하철 1개 노선을 묶는

100개의 통합대중교통망이 완성돼,

노선 선택권이 크게 늘어난다.

시내버스 번호도 '상무 02'·'첨단 94'

등 출발지에 숫자를 병기하는 방식으

로 고쳐,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기

쉽게 했다. 급행간선 버스는 적색,

간선은 황색, 지선은 녹색으로 바꿨다.

배차간격은 평균 10분대로 줄어들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승기준은 승차시간

기준 1시간 이내(지하철은 먼저 탑승

할 경우는 하차시간 기준으로 30분

이내)로 횟수에 상관없이 각 수단간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시계외 구간요금

과 마을버스의 오지 구간요금은 주

가 지불해야 한다.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용 교통

카드도 도입된다.

광주버스와 전남버스를 이용할 때

도 한 장의 교통카드만 사용하게 된다.

광주버스와 전남버스간 무료환승은 안 된다.

노선 개편에 대한 의문점은 인터넷